



사라 학생은 인터뷰 내내 웃는 얼굴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산재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산재단 덕분에 공부가 더 재미있어요”

글 양인실 작가 / 사진 송은지

서울 신촌의 캠퍼스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피었다. 경쾌한 발걸음의 학생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교정을 오갔다. 청바지를 입고 백팩을 멘 사라(28, Sara Maria Florian S) 학생도 여느 대학생과 다를 바 없었다.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공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인 그녀는 만나자마자 능숙한 우리말로 “우리 학교 예쁘죠. 고향인 과테말라에 없는 꽃들이 많이 피어서 신기하고 화사해요”라며 학교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아산재단의 외국인 장학생 중 한 명이다. 아산재단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2016년에도 고등학생 839명과 대학생 900명, 그리고 저개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 10명 등 모두 1,749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그녀는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대표학생으로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는 그때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2008년 이래로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이제 논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제가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릴 때 한국 친구를 통해 일찍부터 한국문화를 접한 그녀는 대학교 2학년 때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다.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넓은 세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오른쪽 끝)과 박정자·손숙·안성기 아산재단 명예자문위원이 지난 2월 29일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사라(앞줄 왼쪽 세 번째) 등 2016년 아산재단 장학생 대표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으로 나아가려는 만말을 응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4년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갔다. 통신과 사이버 보안업계에서 일했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은 날로 커졌다.

2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온 그녀의 가슴에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았다. 공학과 교육의 융합, 한국과 과테말라의 융합을 시도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한국은 IT 선진국이자 개발의 아이콘이었다. 공학도로서 한국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개발 시스템을 배워 시스템의 한계로 제약이 많은 고국 상황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일깨우고 확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정한 논문 주제는 ‘과테말라의 정보화’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첫 유학 때는 정부 장학금과 부모님 지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밑으로 동생이 세 명이나 있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고향에서 2년간 모은 월급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죠. 과테말라에 비해 한국 물가가 엄청 비싸서 유학에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녀를 밀어붙인 건 공부를 향한 열망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공학부를 찾아 한국의 대학원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렇게 찾아낸 이화여대 대학원 담당자와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세 시간 내내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대신 강의를 녹음해 듣고 또 들으며 보충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올수록 책을 파고들었다.

“지난 1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학과 교육에 관련된 것을 많이 배웠어요. 한국 최고의 교육공학자에게 지도받는 것도 영광이고요.”

학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큰 문제였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한편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산재단의 장학금 제도를 알려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고, 얼마 뒤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세계는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가슴에 희망과 열정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이 따르고 믿어요. 아산장학생에 선정된 것도 제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산재단의 장학금이 석사과정에 집중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남은 학기 동안 과테말라와 한국 양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할 생각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아산재단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도 잘 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나 사라는 일어설 줄 몰랐다. 오히려 가방에서 책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하다 갈게요.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로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녀가 앉아 있던 창가가 반짝 빛났다. 그것이 그녀를 비춘 햇살 때문인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긍정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